

## 행사 안내

#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

2017학년도 2학기

### 1. 식순

- 가. 개회
- 나. 국민의례
- 다. 교직원 소개 및 학교장 인사
- 라. 학교 교육과정 설명
- 마. 건의 및 질의의 시간
- 바. 학부모 교육
- 사. 폐회
- ※ 담임과의 상담

### 2. 학급 담임과의 상담 장소

상담 대기실	각 반 교실
각반 교실	학년 교무실 및 담임 지정 장소

### 3. 학교 관리자 및 학급 담임 연락처

교무실	063-350-5123			팩스	063-351-3289			
교장	5101	교감		5102	행정실장		5111	
학급 담임								
1학년	1반 (부장)	김민서	2반	홍종관	3반	최명화	특수	오보람
		5103		5104		5105		5106
2학년	1반	황주연	2반	임선오	3반 (부장)	이효경		
		5141		5142		5143		
3학년	1반	전혜원	2반	정지은	3반	전선호	4반 (부장)	허민택
		5131		5132		5133		5134



## 학교 교육과정 안내

### 1. 2017학년도 1학기 주요 교육 활동 운영 결과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 운영 기간: 2017년 3월 ~ 2018년 2월 - 대상: 본교 및 산서고 소속 9명(2학기 11명) - 운영 시간: 매주 수요일 8~10교시 - 운영 과목: 체력운동(1시간), 체육전공실기(2시간)
학생 자율 동아리 운영	- 운영 기간: 2017년 3월 ~ 2018년 2월 - 개설 동아리 및 참가 인원: 총 15개 동아리 150여명 - 운영 시간: 매주 수요일 8~9교시
교과 행사 운영	- 교내 글쓰기 축제(5월 17일): 전교생 대상, 운문·산문·논술 부문 글쓰기 - 과학의 날 행사(6월 14일): 전교생 대상, 폐입랩·달걀낙하실험·장학퀴즈 - 수학의 날 행사(6월 19일): 전교생 대상, 학년별 서술형 평가 - 독서 기행(7월 11일): 1·2학년 32명 대상, 삼례문화예술촌 및 비비정 탐방 - 사회의 날 행사(7월 17일): 전교생 대상, 지리 올림피아드·우리 역사 바로 알기·시사상식 골든벨·EFL(윤리 경시대회) - 아트 페스티벌(7월 18일): 희망자 대상, 봉제인형·실팔찌·light art·테셀레이션·그래피티·사진콘테스트·포트폴리오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 팝송 페스티벌(7월 19일): 희망자(팀) 대상
영화 예술 수업 운영	- 운영 기간: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운영 대상: 전체 학년 - 운영 시간: 매주 목·금 1시간 - 활동 내용: 영화 기초 이론, 촬영 실기, 영화 제작
테마식 현장체험학습 운영	- 운영 기간: 2017년 5월 9일 ~ 5월 12일(3박 4일) - 운영 장소: 제주 일원 - 참여 인원: 2학년 학생 79명 및 인솔교사 8명
진로·문화 콘서트 운영	- 운영 일자: 2017년 7월 20일 - 참가 대상: 전교생 - 활동 내용: 오전(진로 특강: 전문가 초청), 오후(문화 공연: 밴드·시낭송·오페라·대금 등)
2017학년도 하계 「장수학당」 운영	- 운영 기간: 2017년 7월 24일 ~ 8월 9일 - 참가 대상: 장수고·산서고·백화여고 100명 - 활동 내용: 국·영·수·탐구 집중 학습 - 부대 프로그램: 주말 심화반 운영(2학기 운영, 장수고·백화여고 18명, 영·수학 심화 학습)

### 2. 2017학년도 2학기 주요 교육 활동 계획

사이학교	- 운영 기간: 2017년 9월 20일, 27일, 11월 중(미정) - 운영 대상: 천천초, 장수초, 장수중(예정) - 참여 대상: 학생 자율 동아리 15개 총 150명 - 활동 내용: 과학 실험·진로 등 15개 체험부스 운영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 및 세미나	- 운영 기간: 2017년 8월 ~ 2018년 2월 - 참여 대상: 학생 자율 동아리 15개 - 활동 내용: 주제별 탐구 및 실험·실습 활동, 활동 결과물 발표회
학생 토론대회	- 운영 기간: 2017년 9월 13일 ~ 11월 1일 - 참여 대상: 1·2학년 중 희망 팀(3인 1팀) 총 8개 - 활동 내용: 국어·사회·과학 주제별 토론 토너먼트
학생 영화제	- 운영 기간: 2017년 12월 20일 ~ 12월 27일 - 참여 대상: 전 학년(학급별 참여) - 활동 내용: 창의적 특색활동 영화 수업의 결과물을 교육 공동체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상영
2017학년도 동계 「장수학당」	- 운영 기간: 2018년 1월 중 운영 예정(총 4주) - 참가 대상: 장수고·산서고·백화여고 100명 - 활동 내용: 국·영·수·탐구 집중 학습
교과 행사	- 통계의 날 행사(9월 27일): 통계 포스터 창작 및 발표 대회 - 작가 초청 강연(10월 25일): 작가 초청 희망자 대상 강연 - 영어 글쓰기 페스티벌(11월 6일): 영어 에세이 쓰기 대회 - 디자인 페스티벌(12월 27일): 디자인 창작 및 발표 대회
전원제	- 운영 일자: 2017년 12월 22일 - 운영 장소: 한누리전당 - 참여 대상: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 - 활동 내용: 학급별 공연, 개인별 공연, 특별 공연
주요 학사 일정	- 대학수시 원서 접수 기간: 9월 11일 ~ 15일 - 재량휴업일: 10월 2일, 11월 16일(대학수학능력시험일) - 2학기 1차고사: 10월 18일 ~ 20일 - 2학기 2차고사(3학년): 11월 20일 ~ 23일 - 2학기 2차고사(1·2학년): 12월 12일 ~ 15일 - 겨울방학: 2017년 12월 30일 ~ 2018년 2월 5일 - 졸업식: 2018년 2월 9일

## 언론 보도내용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장수고, 지역거점 학교로 자리매김

장수고등학교(교장 노상근)는 1955년 개교 이래 5,3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장수 지역을 대표하는 인재의 산실로, 학교의 발전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지역 거점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장수고는 지난 2015년 9월 노상근 교장 부임 이래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장수학당’과 ‘대학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교사교류 사업’,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 자율 동아리’, ‘프로젝트 학습’ 등의 다양한 교육 사업들을 유치·운영하며 농촌 지역의 학교들에 모범이 될 만한 선도학교로 발돋움해왔다.

이러한 노력들이 맺은 결실인 학교의 발전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해나가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을 이어나가고 있다.

#### -꿈으로 채우는 학교와 학교 사이, ‘사이학교’ 운영



장수고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예산 지원을 받아 지난해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지역의 초·중 4개교를 방문해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동아리 활동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체험부스를 마련해, 자신보다 더 어린 친구들과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재학생 80여명이 참여해 두 달여 동안 과학 실험과 보건·의료, 진로·직업과 관련된 20개의 체험부스를 준비한 ‘사이학교’는 장수초등학교에서의 일정을 시작으로 번암초와 장수중, 그리고 장계중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 아동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혀 교류가 없었던 지역 내 학교 간 교류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번 해에는 9월 20일과 27일 각각 천천초등학교와 장수초등학교에서 열릴 계획이다.

#### -진로·진학 교육의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교육과정 거점학교’ 운영

장수고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예산 지원을 통해 이번 2017학년도 ‘체육 교육과정 거점학교’를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은, 체육 관련 진로 체험의 기회가 적은 지역 학생들에게 체육학과 진학에 필요한 체력 및 기능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2016년 장수고 재직 교사가 재학생 중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체대 입시 프로그램을 산서고의 요청에 따라 확대해 운영 중이며, 현재 장수고 학생 3명과 산서고 학생 6명, 총 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수업은 거점학교인 장수고에서 운영되는데 학기 중에는 매주 수요일 방과 후 시간(16:30~20:40)을 활용해 체력운동 1시간과 체육전공실기 2시간으로 진행된다.

산서고 학생들의 통학을 위한 통학택시비와 수업일 저녁 급식비 전액을 운영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공주대 체육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멘토로 초청해 매일 4시간의 실기 지도가 운영됐다.

이번 2학기에는 1학과와 마찬가지로 체력운동과 체육전공실기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 학생들의 동기 유발과 진학 정보 탐색을 위한 대학 탐방의 체험학습이 계획돼 있다.

####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의 변화, 학부모회 활성화

지역의 높은 교육에 대한 관심에 비해, 그동안 학부모들의 학교교육에 참여는 저조한 편이었다.

‘참여와 실천을 통해 변화하는 학교 문화’를 교육 목표로 삼은 만큼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회는 도교육청의 ‘학교참여지원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으로, 지난 3월 29일 학부모 대위원회를 통해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 총무 및 감사, 그리고 학년 대표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학부모회는 지난 4월 12일, 꽃피는 학교길 만들기 프로젝트로 활동을 시작했다. 수요일 학교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부모회 회원과 교사, 그리고 전교생이 참여해 학교 진입로 주변 화단에 꽃잔디를 심었다.

이후 7월 14일에는 참여 신청을 받아 장수지역자활센터의 목재공방사업장을 방문해 학부모회 회원 11명과 자녀, 교사들과 함께 목공예 기초를 배우고 수납선반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2학기에는 더욱 폭을 넓혀 급식과 기숙사 모니터링과 도서관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진로·문화 체험의 장 마련 '진로·문화 콘서트' 개최

7월 20일 장수고에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지역 여건상 진로·문화 체험이 어려운 지역 학생들에게 직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진로·문화 콘서트'이다.

행사 당일 오전엔 교수와 기업인, 금융인, 정치, 농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그들의 직업 세계와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들려주는 진로 콘서트가 마련됐다.



오후에는 장수초로 이동해 오카리나와 대금·록밴드 연주자들의 공연과 시낭송, 그리고 장수고 재학생과 동창회가 학부모가 참여한 공연 무대가 마련됐다.

학교 구성원들의 큰 호응 속에서 마무리된 이날 행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와 예술 공연을 제공했다는데서 만족도가 높았다. 2학기에는 학교 학생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 세미나와 '전원제' 등의 축제가 마련될 예정이다.

### -지역 공동체와 함께 즐기는 장수 학생영화제

장수고는 2017년 특색사업으로 도교육청의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매주 학급당 1시간씩 영화 수업을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와 표현 능력, 예술적 감수성의 신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학급별로 1시간씩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1학기에는 영화 전문 강사가 영화 감상과 개론, 시나리오 작성법, 촬영 기법 등의 주제로 수업을 진행했다.

2학기에는 학급별로 영화 촬영과 편집 실기 수업이 계획돼 있는데 이 활동의 결과물을 출품작으로 해 12월 27일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외에도 장수고는 학교의 내실화를 위한 학생들의 학력신장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해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수 강사진들을 초청해 '장수학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과 내용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학습반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심화학습반 국·영·탐구반 등 4개 반을 운영 중이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의 신장을 돕는 학생 토론대회도 운영 예정에 있다. 이 대회는 10월 예선을 거쳐 11월 1일 최종 결선을 앞두고 있다.



노상근 교장은 "장수고는 스스로 배우고 배움을 나누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 비전을 가진 학교이다"며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학교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힘을 한데 모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발전을 학력이나 입시 결과로만 재단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행복이라 생각

한다"며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선 꿈이 있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사는 학생의 꿈과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마중물 같은 존재이다. 지금 우리 장수고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위해 힘을 한데 모아 지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면서 "수업과 학생의 진로 지도에 대한 전문성과 책무성을 갖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통해 학교와 학생은 조금씩 성장해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도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노상근 교장은 또 "교장실에는 전교생의 꿈이 담긴 사진이 게시돼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생님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면서 "항상 우리 구성원들,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지켜보고 생각하며 그들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노 교장은 끝으로 "우리 장수고의 교훈은 효도, 면학, 창조"라면서 "교훈이 말하는 것처럼 효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농촌 거점 학교로 거듭나겠다."고 학교 경영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투데이안, 최재호 기자, 2017.8.24.



## 학부모 교육

### 1. 아동학대 예방 교육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만18세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해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아동학대 유형

신체학대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학대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시키는 행위
성학대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방임·유기	물리적방임, 교육적방임, 의료적방임, 유기(아동을 버리는 것)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관련법칙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요령

- 가.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응급상황 시 아동 안전 우선 확보)
- 나. 아동학대 신고(112번)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 신고
  - 신고시 학대의심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협력 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서에 연락

### 2. 학교폭력 예방 교육

○ 피해의 인지: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이나 부모에게 말한 경우는 26.1%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사전에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학교폭력 식별징후를 인지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 공감: 피해자녀가 어려움을 이야기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어려움을 스스로 털어놓았을 때는 일단 수용하며 편견 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피해의 사실, 아픔, 상처에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자녀의 고통에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정신적인 치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지나치게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피해학생은 문제가 해결된 이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선생님·친구들과 생활을 해야 하므로 자신의 고통을 가능하면 진통 없이 잘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과정에서도 자녀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물증의 확보: 피해사실을 알았다면 물증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학교 측에서 피해상황을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치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법률적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증거 수집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지만 교사에게는 가해학생도 제재하기 때문에 학부모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교사의 협조를 구하는 지름길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물증 위주의 증거제시입니다. 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며 타협의 매개로 활용한다면 가해자 측의 사과와 배상을 이끌어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물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진술이 상반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현행법상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 3. 안전교육

#### ○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 가.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나.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 다.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체류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 참고: 한 연구결과(Science Daily, 201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흡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행 시 2~6 km/hr, 자전거 운행 시 12~20 km/hr(성인기준) 속도 유지

##### 라.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 마.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 바.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 사.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 ○ 자녀 납치범자 전화사기 대처법

##### 가. 사기범들의 전화사기 수법 및 절차

- 경찰관, 검찰 등을 사칭 자녀의 휴대전화번호 확인 후
- 자녀에게 전화 걸어 욕을 하거나 계속해 전화를 걸어 귀찮게 하여 휴대폰을 끄게 한 후
- 재차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하였다며 살려달라는 목소리 등을 들려주고 금전 요구

##### 나. 대처 방법

- 납치 협박 전화를 받은 경우 무조건 경찰(112)로 먼저 신고하고
- 학부형과 학교(특히 담임 선생님)간 비상연락망 구축하여

- 평소 자녀의 친구, 자주 가는 곳을 미리 파악, 자녀가 휴대폰을 받지 않을 경우 즉시 확인 후

- 절대 금전을 먼저 송금하지 말고 자녀의 소재부터 파악한다.

#### ○ 화재 대피 요령

- 가.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 나.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으며 계단을 이용한다.

- 다. 실내에 있을 경우 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본다.

- 라. 손잡이를 만져보았을 때 차가우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온다.

- 마.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며, 다른 출구가 없을 시 소방관들이 구해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연기가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는다. 물을 적시면 더욱 좋다.

#### 4. 성교육 자료(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양성평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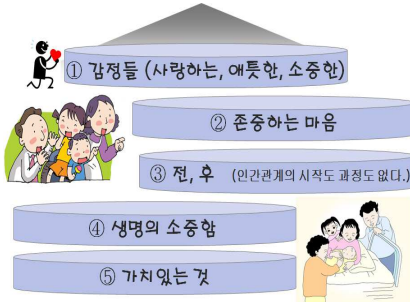
#####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 교육법

성폭력 예방을 위해 아들에게	성폭력 예방을 위해 딸에게
가. 여성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말자.	가. 평소 너의 주장을 뚜렷이 하여라.
나. 상대방의 거부를 그대로 받아들여라.	나. 말이나 행동에서 애매한 여운을 보여주지 말라.
다. 성폭력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라.	다. 너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라.
라.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 친구와 너의 생각은 같은 상황에서도 다를 수 있음을 알아라.
마. 피해자가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마. 너를 소중히 여겨라.
바. 음란 비디오나 음란 사이트를 보지 말라.	바. 부모, 가족이 항상 너의 편이며 너를 사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사. 불쾌하거나 나쁜 접촉은 장난이라도 하지 말라. (꽃으로도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된다.)	

##### ○ 성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 평소에 일어난 일을 항상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상 잘 들어주는 부모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 ▶ 몸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과 성교육을 시킵니다.
- ▶ 평소 자녀가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낼 때 피하지 않습니다.
- ▶ 자녀들과 함께 성폭력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합니다.
- ▶ 낯선 사람이 친구를 끌고 가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즉시 주변의 어른들에게 알리도록 가르칩니다.
- ▶ 성폭력 사실을 말하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협박했더라도 가장 안전하게 도와줄 사람은 부모나 교사이므로 바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 ▶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성범죄자 알림e사이트』를 활용한다.  
(홈페이지 주소 : [www.sexoffender.go.kr](http://www.sexoffender.go.kr) 접속하여 인증절차 후 조회)

##### ○ 성매매 예방

청소년 성매매 실태	성매매에 없는 것
<p>1) 청소년 성매매 유입경로에는 보통 5가지 경로가 있다.(가출, 인신매매, 사이버공간, 친구의 유혹, 전단지) 그중 가장 많이 접하는 경로는 사이버공간이다.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대화방을 열거나 쪽지를 보내는 방식으로 성매매 제의가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p> <p>2) 성매매 청소년의 90% 이상이 유흥비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성매매를 하고, 청소년이 먼저 성매매 제의하는 경우가 성 매수 성인이 제의하는 경우보다 2배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p>	

##### ○ 가정 내 양성평등은 이렇게

가. 양성평등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되며, 가족과 사회의 변역에 동참하는 길이 봉쇄되어서도 안 되며,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 나. 가정 내에서 부부간의 평등

<b>평등한 부부란?</b>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b>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b>	
<b>2)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b>	
<b>3)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b>	

##### 다. 자녀양육·교육에 있어서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 어렸을 때부터 딸, 아들 모두 예술, 체육 등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키웁니다.
- 딸,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 라. 혹시 어른의 성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요?

여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자는 얌전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li> <li>- 여자는 인물만 있으면 공부는 좀 못해도 된다.</li> <li>- 여자가 선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li> <li>- 너무 똑똑하고 건방져서 시집가기 어렵겠는 걸</li> <li>-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자는 직업상 성공하고 높은데로 승진해야 한다.</li> <li>-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토라지고 왜 이렇게 속이 좁아?</li> <li>-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돼.</li> <li>- 남자아이가 그것도 못하고 계집애처럼 울고...</li> <li>- 사내 녀석이 부엌엔 왜 들어와?</li> </ul>

## 5. 2015 개정교육과정 및 공교육정상화법(선행학습 금지) 교육 자료

### ○ 2015 개정교육과정 안내

가. 적용년도: 2018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운영

- 7개 공통과목 신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과학탐구실험, 한국사

다. 기초영역 교과(국, 수, 영)에 한국사 포함, 총 교과 이수단위의 50% 이내 편성

라. 학생 적성, 진로에 따라 일반선택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 이수(문·이과 구분)

### ○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가.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른 규제 대상

- 선행교육

- 선행학습 유발 행위

-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대학 입학전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문제 출제

나. 규제대상의 예외

- 학교 휴업일 중 실시하는 방과후 과정

-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방과후 과정

-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의 방과후 학교 과정

다. 적용의 배제

- 영재교육기관의 영재교육

-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 예체능, 교양, 제2외국어, 전문교과 등

## 6. 2017 학생 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안내

### ○ 평가의 개선 방향

수행평가 확대 및 활성화	지필평가 축소 및 내실화	기록 및 피드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대평가제</li> <li>○ 전교과 40% 이상 확대 반영</li> <li>○ 과정·성장 중심 수행평가</li> <li>○ 수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일차형 평가</li> <li>○ 수행평가 예고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년초 계획수립 후 공지</li> </ul> </li> <li>○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기간(3일)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필 60% 이하 축소 반영</li> <li>○ 지필평가 재량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필평가 횟수 적정화 (구성원의 합의 존중)</li> <li>- 서술(논술)형 비율 조정 가능</li> </ul> </li> <li>○ 성취기준 도달 중점</li> <li>○ 수업활동이 녹아있는 평가</li> <li>○ 문항출제 및 검토 책임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유의미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업 중 활동 누가기록</li> </ul> </li> <li>○ 배움과성장중심피드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취기준 도달 중점</li> <li>- 교수학습개선 및 성찰</li> <li>- 구성원간 새로운 관계 설정</li> </ul> </li> </ul>

### ○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향

가. 학교교육계획이나 학교교육과정에 의거해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의 이수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

나. 각종 공인어학시험(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 경시대회,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사실이나 성적(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또는 관련 교내 수상실적 포함), 교외상, 논문(학회지) 등재나 도서출간, 발명 특허 내용, 해외 봉사활동실적,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암시 내용 등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 불가

다. 허위 사실이나 단순 사실의 과장 기재의 금지

라. 수상경력: 교내상 수상경력만 입력 가능.

마. 진로희망: 2017학년도 신입생부터 "학부모 진로희망"란과 "특기 또는 흥미"란 삭제. 학생 진로희망과 희망사유 만 입력.

바. 창의적체험활동: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

사.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학생의 수업 참여의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며, 방과후학교 활동 내용은 교과담당 또는 담임교사가 강좌명(주요내용)과 이수시간만을 기재

아. 자율탐구활동: 정규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사교육 개입 없이 학교 내에서 학생 주도로 수행된 연구 주제 및 참여 인원, 소요 시간만을 기재

사. 독서활동상황: 책의 제목과 저자만 교과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기록



## 7. 장애이해 및 장애인권개선 교육 자료

○ 통합교육: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 유형·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6항)

○ 통합교육의 긍정적 효과

-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또래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긍정적인 자아감과 사회 적응력을 키웁니다.
- 또래친구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나와 개성이 다른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돕는 경험을 통해 타인에 대한 배려, 인간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한 포용력이 생깁니다. 또한 사회적 리더로서의 책임감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법

	<p><b>교육 (제13조, 14조)</b>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p><b>이동 및 교통수단 (제19조)</b>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한다.</p>
	<p><b>괴롭힘의 금지 (제32조)</b>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된다. ※ 교내규칙에 따라 장애학생을 괴롭힘 경우 한 단계 높은 징계가 적용</p>
	<p><b>고용 (제10조, 제11조)</b>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p>

## 장애인을 만났을때 에티켓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막상 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유형에 따른 에티켓을 안내해 드립니다. 읽어 보시고 혹시 장애인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 주세요.

### 공통 에티켓

- 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기
- ② 도움을 주기 전에 먼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
- ③ 바른 용어 사용하기(장애인/비장애인)
- ④ 장애가 있는 친구를 부를 때 장애인, 특수반이 아닌 이름 불러주기

##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 시각 장애인

- ① 길을 안내할 때 '여기, 저기' 등의 표현보다는 방향을 '왼쪽, 오른쪽' 등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 ②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 보 앞에서 걷기
- ③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장애인의 손을 의자 등받이에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 청각 장애인

- ①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욕을 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기(입모양을 보고 의미를 이해함)
- ②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서 소통하기. 지나치게 천천히 말하거나 입모양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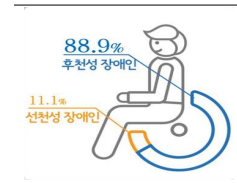



### 지적 장애인

- ① 한자리에 오래 혼자 우두커니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다정하게 신상을 물어보고,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나 경찰서에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 ② 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
- ③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

### 지체 장애인

- ①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 물어보고 주위사람을 불러 함께 이동 등을 돕기
- ②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거나 보행에 걸리지 않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기

##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 OX 퀴즈

태어날때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많나요?	장애인을 '장애우'로 표현하는게 더 좋을까요?	장애인을 동정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나요?	뇌성마비 장애인은 지능이 낮나요?
 <p>장애인의 88.9%는 후천성 장애인입니다.</p>	 <p> 남녀노소 구분이 없이 장애인으로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p>	 <p>무조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지 말고 평등한 관점으로 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습니다.</p>	 <p>지능과 관련된 부분의 뇌손상이 아니라면 지능은 우리들과 같습니다.</p>

##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



### 명통시(明通寺)

조선의 시각장애인 지원 기관으로 우리나라 최초, 아니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입니다. 명통시에 소속된 장애인들은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 번씩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하고, 가뭄이 들면 기우제 등 국가의 공식 행사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노비와 쌀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장애인에게 세금과 부역을 면

제해주었으며, 신분제도가 아주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에 상관없이 중증장애인에게는 시종(일종의 도우미)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나 배우자, 자식들이 장애인을 정성껏 부양하면 그 집을 포상하는 장려제도를 실시했으며, 반대로 장애인을 학대하는 자에게는 일반 범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엄벌제도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자립을 중요하게 여겨, 점복사, 독경사, 악공 등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하였으며, 장애인은 신분에 상관없이 능력위주로 채용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쳤던 조선 시대는 장애인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없었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척추장애인 허조는 조선 초 우의정과 좌의정을, 간질장애인 권균은 종종 때 우의정을, 지체장애인 심희수는 광해군 때 좌의정을, 청각장애인 이덕수는 영조 때 대제학과 형조판서에 오르는 등 역사를 빛낸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 왕도 한글 반포 1, 2년 전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 거의 앞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장애의 유무보다도 그 사람 자체의 능력과 노력을 더욱 중시했습니다.

그랬기에 박연(세종실록 13년)은 다음과 같이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옛 제왕들은 모두 시각장애인에게 현송(絃誦, 거문고를 타며 시를 읊음)의 임무를 맡겼으니 이는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역사 채널 e: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정창권 저, 문학동네),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정창권 저, 글항아리)

## 8.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

### ○ 다문화시대

‘세계화’, ‘글로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말로 인종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시대를 말한다.

### ○ 다문화가정의 뜻

- 1) 좁은 의미: ‘다문화가정’이란 우리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 하는 용어다.
- 2) 넓은 의미: 다문화가정은 국제결혼가정(한국인남성+이주여성, 한국인여성+이주남성), 이주민가정(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을 포함하는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이다.

다문화가정	그 자녀
국제결혼 가정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외국인근로자 가정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여 태어난 아이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족이 국내에 이주한 가정의 아이
새터민 가정	탈북자인 아버지와 어머니로 이루어진 가정의 아이
	한국인과 탈북자와의 가정에서 태어나 아이
	탈북자와 외국인과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 ○ 다문화 자녀의 권리 보호

교육이 사람을 빠르게 자라도록 인도하는 과정으로 보았을 때, 학생들에게는 국적이나 신분을 떠나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근래에 들어 국제 이주자들의 문제가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에서 생활여건과 자녀의 교육문제로 사회적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는 국내법 및 국제법적으로 차별 없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 1) 국제 결혼가정 자녀의 교육권리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결혼이민자’)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31조에 의한 교육법 보장을 받는다.

#### 2)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교육권리

외국인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헌법 제6조 제2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 위원회 권고(2003.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감사합니다! ^^